하나금융그룹

(2019 – 02호)

건강한 금융생활정보 가이드

KEB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

목차(CONTENTS)

1. 보이스피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휴대폰 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발생 안내
3. 여러가지 보이스피싱 유형을 주의하세요
4.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내용 참고하세요!
5. KEB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
6. KEB하나은행, 외국인 근로자 손님 편의를 위해 호남지역에 일요 영업점 개점

※ 자료 출처
: http://www.fss.or.kr

KEB 하나은행

1. 보이스피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연령·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드림

✓ 최근에는 **전화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하여서는 안 됨**

✓ 또한, 112(경찰), 02-1332(금감원) 등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 하더라도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조작**한 사기 전화일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을 의심

✓ 검찰·경찰·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명심

❑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보내라는 낯선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하고"를 유념해 줄 것을 당부드림

✓ 만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청)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 최근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사례를 알려드리오니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사례

피해사례 1 허위 신용카드 결제 문자 + 원격조종 앱

❑ 2019 년 3 월 피해자 A(48 세, 중소기업 운영)는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신용카드 해외결제 문자메시지를 받고 확인하기 위해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

✓ 전화 상담원은 A 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대신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며 A 를 안심시킨 후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안내

❑ 잠시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사기범)이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당신 명의로 발급된 계좌가 범죄자금세탁에 이용되었으므로 모든 계좌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A 에게 휴대폰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것을 요구

✓ 사기범은 A 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하면서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을 실행하고 "정상적으로 이체되는지 시험해보겠다"며 **A 에게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다른 계좌로 49 백만원을 이체

【유의사항】

① 결제 문자메시지가 의심될 경우 메시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지 말고 **소지한 신용카드 뒷면에 안내된 전화번호 또는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된 카드사의 전화번호로 문의**

② **출처·용도를 알 수 없는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라는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

③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번호를 알려주거나 입력하는 것은 절대 금지!**

피해사례 2 금융회사 사칭 대출사기

❑ 2019 년 2 월 피해자 B(56 세, 자영업)는 1577-XXXX 전화번호로 "OO 캐피탈 대출 팀장입니다. 1 천만원 전환대출이 가능한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대출을 발생시켜 갚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됩니다"라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음

✓ B 는 사기범의 요구대로 **대출전용 앱*을 설치**한 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카드사로부터 카드론대출 500 만원을 받아 다시 갚기 위해 △△카드사 대표전화 1588-XXXX 로 전화함

★ 피해자가 휴대폰에서 거는 **전화를 가로채는 악성 앱**으로서, 피해자가 △△카드 대표전화 또는 경찰서, 금감원으로 전화하더라도 **모두 사기범 일당에게 연결됨**

✓ 카드사 상담원을 가장한 사기범 일당으로부터 "**고객님의 카드론 상환을 위해 C 의 ㅁㅁ은행 계좌 xxxx 로 입금해 주세요**"라는 안내를 받고 C 의 계좌로 500 만원을 송금

❑ 이후 B 는 대출이 되었다는 연락이 없어 이상하게 여기던 중 △△카드사의 대금청구서를 받고 **카드론대출이 상환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됨

【유의사항】

① 신용등급은 단기간에 예금 또는 대출거래 실적을 통해 올라갈 수 없으므로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돈을 송금하라는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

② 대출금 상환은 채무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가능하므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

☞ 본 자료 출처 : http://www.fss.or.kr

2. 휴대폰 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발생 안내

1 피해 사례

❑ 최근 **제주지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김석제")**을 사칭**하여, **휴대폰 원격조종이 가능한 특정 프로그램(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후 **대출금 및 기보유 예금** 등 **총 199 백만원을 편취**한 사례 발생

① 사기범은 "**416 불 해외 결제**"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 피해자가 발신번호로 전화하자 마치 카드회사인 것처럼 전화를 받고

- 카드부정사용 신고를 접수하였으니 경찰로 이첩할 것임을 안내한 후, ◎◎경찰서로 속이고 전화하여 금감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재안내

② **금감원 직원 "김석제"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불상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휴대폰에 팀뷰어 프로그램**(앱명 : Quick Support)을 **설치**하도록 **유도**

③ 앱 설치 이후 사기범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하여 카드사 현금서비스 2 건, 카드론 2 건 등 **4 건**의 **대출을 실행받아 편취**하고*

★ **정상적으로 계좌이체 되는지 시험해보는 것**이라고 속인 후 수취계좌번호 등을 사기범이 입력하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만 입력**하여 'LE VAN LOC', 'NGUYEN THI' 등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로 49 백만원** 이체

- 그 다음날 같은 수법으로 **예금 '150 백만원'**을 'ㅇㅇㅇ'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는 등 **199 백만원을 편취**

2 소비자 유의사항

❑ 의심스러운 휴대폰 앱은 설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출처불명의 문자메시지나 유선**으로 **휴대폰 앱** 설치를 요청할 경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절대 설치하지 않도록 유의**

✓ 금감원 직원은 개인에게 **휴대폰 앱 설치를 권유하지 않으므로** 직원을 사칭하며 권유하는 경우에는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

❑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금융거래 조치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림

★ 대검찰청(☎02-3480-2000), 경찰청(☎112), 금감원(☎1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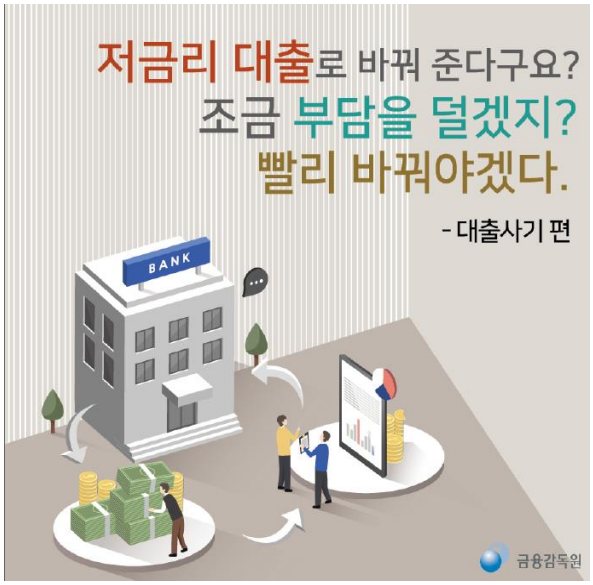
❑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

☞ 본 자료 출처 : http://www.fss.or.kr

3. 여러가지 보이스피싱 유형을 주의하세요

1 대출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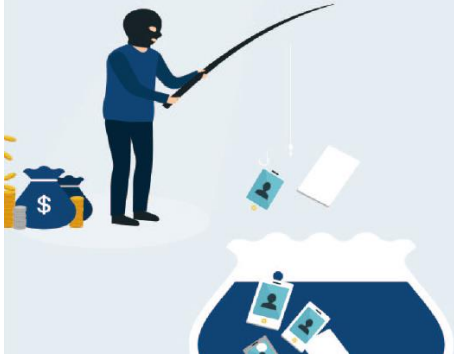


피해자 B씨(30대,남)은
00은행직원을 사칭한
저금리 대출
전화를 받게된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자신이 받은 대출의
금리부담이 컸던 B씨는 고민 없이
고금리대출금을 상환 하기로
마음 먹었다

B씨는 00은행직원으로 사칭한
사람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기존 대출금 0억을 입금했지만
사기범은 연락두절되며 잠적한다.

본인의 상황이 막막해
큰 고민없이 순식간에 결정되어
진행 된 대출 사기



평소 B씨는
'보이스피싱 같은걸 왜 당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상황을 잘 꿰뚫고
심리를 이용한 사기에는 누구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ANK
대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으면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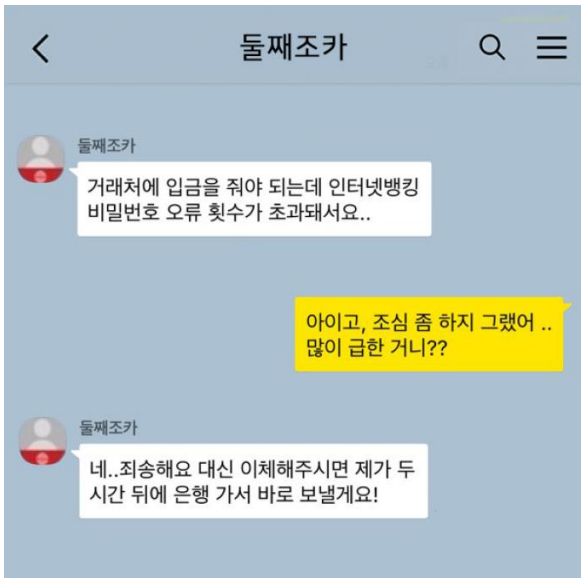
조금의 의심이
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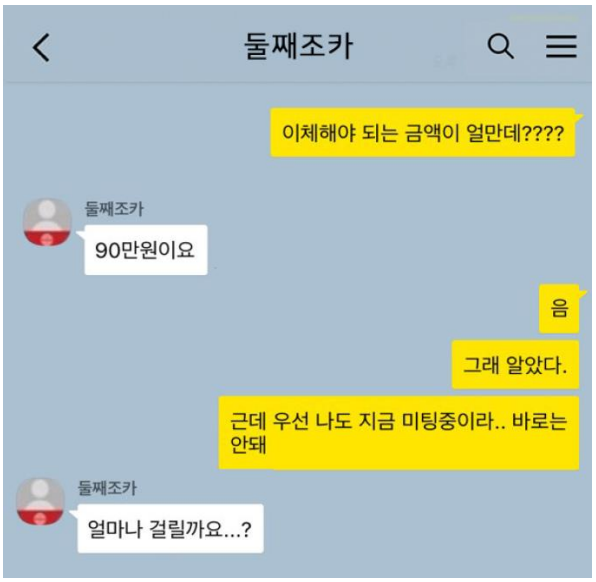
저금리 대출 전환가능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무조건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세요.
금융꼭수리 3Go!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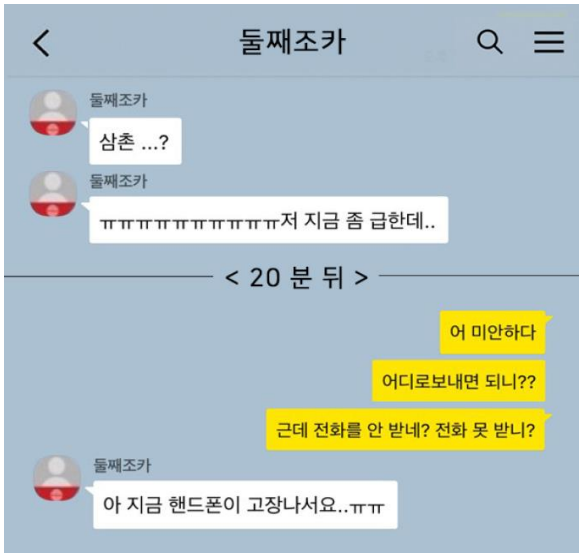
2 메신저 피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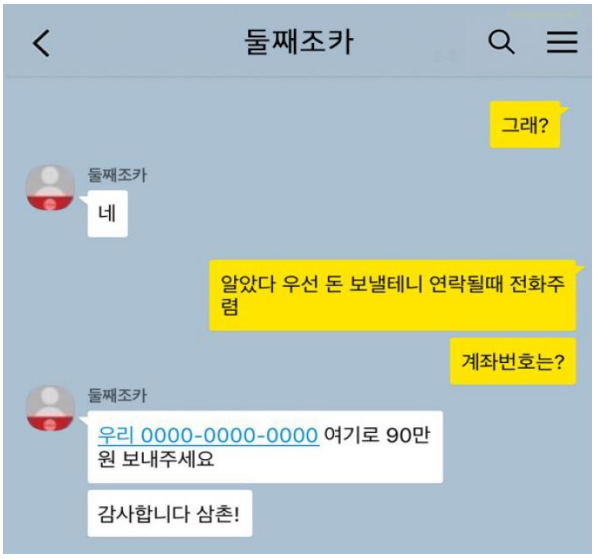
내가 아는 당신이,
당신이 아니라고 ?
- 메신저피싱 지인편 -

둘째조카
추가
차단
신고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금전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둘째조카
삼촌!
응ㅇㅇ아
둘째조카
죄송한데, 저 지금 급하게 이체를 해야되는데 대신 이체 좀 해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둘째조카
둘째조카
거래처에 입금을 줘야 되는데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오류 횟수가 초과돼서요..
아이고, 조심 좀 하지 그랬어 .. 많이 급한 거니??
둘째조카
네..죄송해요 대신 이체해주시면 제가 두 시간 뒤에 은행 가서 바로 보낼게요!


둘째조카
이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만데????
둘째조카
90만원이요
음
그래 알았다.
근데 우선 나도 지금 미팅중이라.. 바로는 안돼
둘째조카
얼마나 걸릴까요...?


둘째조카
둘째조카
삼촌 ...?
둘째조카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저 지금 좀 급한데..
< 20 분 뒤 >
어 미안하다
어디로보내면 되니??
근데 전화를 안 받네? 전화 못 받니?
둘째조카
아 지금 핸드폰이 고장나서요..ㅠㅠ


둘째조카
그래?
둘째조카
네
알았다 우선 돈 보낼테니 연락될때 전화주렴
계좌번호는?
둘째조카
우리 0000-0000-0000 여기로 90만원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삼촌!

부모, 친척 등 가족을 상대로
현금을 갈취하는 메신저피싱
메신저로 현금을 요구받은 경우
꼭 전화를 걸어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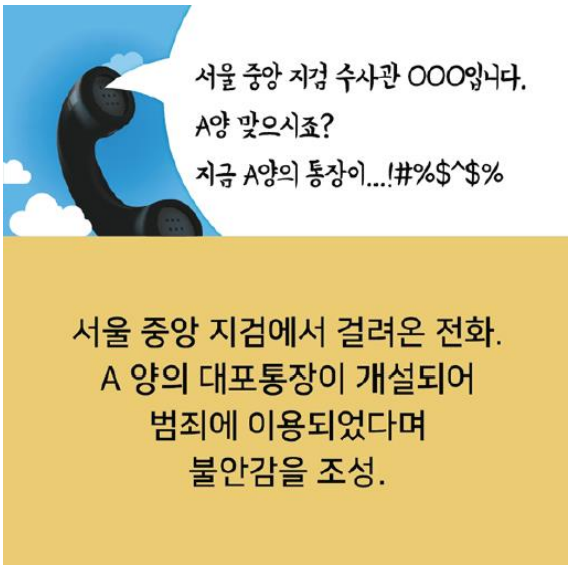
보이스피싱
신고안내
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
또는 112 (경찰청)

3 정부기관 사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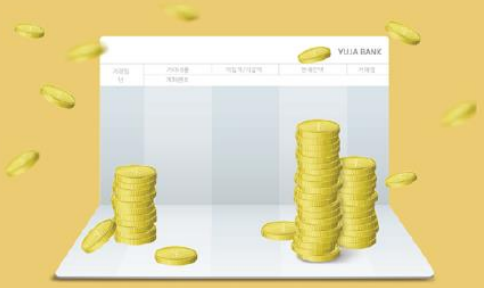
분명히
112에서
온 전화
였다구요
정부기관사칭 편
금융감독원

평범한 20대 직장인 A양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던 중
걸려온 한통의 전화
발신번호
02-112

112라는 번호에 A양은
별 의심없이 전화를 받는데,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 OOO입니다.
A양 맞으시죠?
지금 A양의 통장이...!#%$^$%
서울 중앙 지검에서 걸려온 전화.
A 양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불안감을 조성.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줄 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한다.



전화너머 들리는 안정되고
전문가스러운 어법에
A양은 의심의 여지없이
그 말을 믿게 되는데!

A양은 2일에 걸쳐
3개의 금융기관 5개 지점을 방문하여
정기예금 및 보험을 해지한 후 사기범이 알려준
대포통장으로 총 1억원을 송금.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직원이
A양 에게 자금사용 목적을 물었지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사기범이 시키는대로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낸다'고
이야기 한 사건.

젊은 20~30대들을 상대로 하여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을 갈취한
사기 사건은 우리 주변과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에서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지 않습니다.

낯선사람이 돈을 요구할 경우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그놈목소리 3Go!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신고번호 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

☞ 본 자료 출처 : http://www.fss.or.kr

4.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내용 참고하세요!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여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발생**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소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1 일방과실 적용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 개)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 개**(15.8%)에 **불과**하여

✓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 지속**

★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 적용 사례

➢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이라고 안내

➢ 교차로 내 **직진차로**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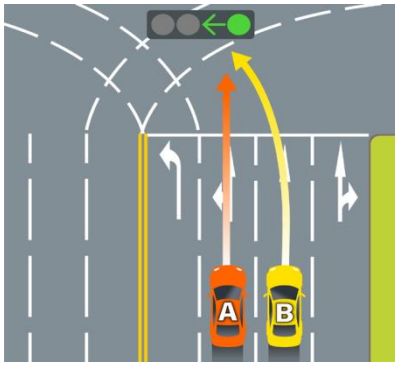
❑ **(개선방안)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22 개) 및 변경(11 개)**

<참고> **주요 신설·변경된 일방과실 기준 도표 예시**

①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변경)

번호	도표	사고상황			
251 도표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 **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A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추돌한 사고			
		현행		개정안	
		A	B	A	**B**
		20%	80%	0%	**100%**

②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 사고(신설)

번호	도표	사고상황			
259 도표		**직진신호**에 **직진 · 좌회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A **차량**은 **직진**하고, B **차량**은 **직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			
		현행		개정안	
		A	B	A	**B**
		-	-	0%	**100%**

2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부합한 과실비율 기준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4**년** 마다 **개정**되어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의 **공백** 발생

✓ 이에 따라,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신규 교통시설물 등)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와 **보험회사 담당자**가 **과실비율**을 **협의**하여 결정

✓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분쟁** 및 **소송**이 **다수 발생**

★ 자전거 전용도로 및 회전교차로 관련 과실비율 분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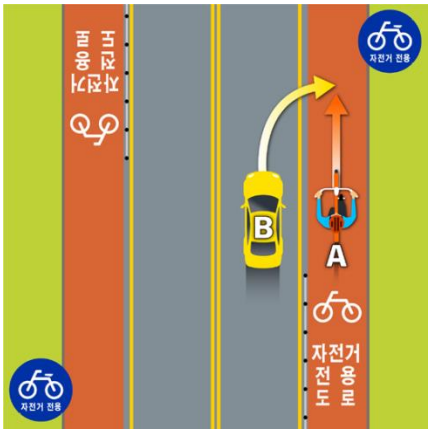
➢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 충돌** 사고시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10)로 안내

➢ **회전교차로** 내 회전차량과 진입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회전차량의 무과실 주장과 진입차량의 선진입 주장이 대립하여 **과실비율 합의가 어려움**

❑ **(개선방안) 신규 교통시설물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비율 기준 신설(12 개) 및 변경(1 개)**

<참고> 신설된 신규 사고유형 기준 도표 예시

①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신설)

번호	도표	사고상황			
453 도표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B 차량이 A 자전거를 충격한 사고			
		현행		개정안	
		A	B	A	B
		-	-	0%	100%

② 회전교차로 사고(신설)

번호	도표	사고상황			
262 도표		회전교차로(1 차로형)에 진입하는 A 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B 차량간의 충돌 사고			
		현행		개정안	
		A	B	A	B
		-	-	80%	20%

3 최신 법원 판례 경향 및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법원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게 판결한 사례*가 발생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신뢰성 저하

★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과실비율 인정기준 보다 높게 판결한 사례

➢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차대이륜차 사고의 경우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차량에 비해 작게 설정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에서는 이륜차의 무리한 진입 시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높게 판결(서울중앙지법 2019.4.29. 선고, 2018 나 78260 등)

✓ 또한,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 등 법규 개정에 따라 일부 사고사례의 과실비율 변경 필요성 제기

* 소방차에 대한 양보운전 위반 시 처벌 강화(최고 20 만원→200 만원) ('17.12.26.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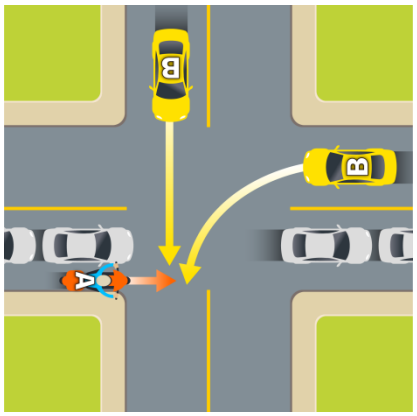
**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 중 사고 시 형사 처벌 감면 ('16.1.27 개정)

❑ **(개선방안) 최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인정기준의 과실비율을 신설(20 개) 및 변경(7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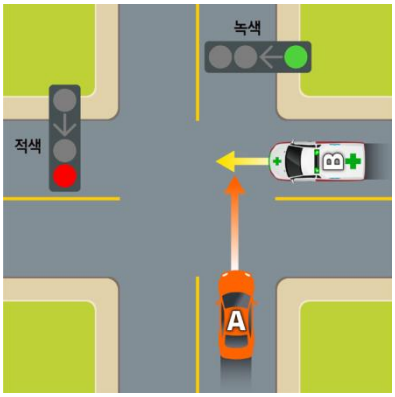
✓ 아울러,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

<참고> **최신 판례 및 법령 개정을 반영한 주요 기준 도표 예시**

① 교차로에서 이륜차 사고(변경)

번호	도표	사고상황			
376 도표		정체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A **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B **차량간** 사고			
		현행		**개정안**	
		A	B	**A**	**B**
		30%	70%	**70%**	**30%**

②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사고(신설)

번호	도표	사고상황			
267 도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A **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B **긴급차량**과의 사고			
		현행		**개정안**	
		A	B	**A**	**B**
		-	-	**60%**	**40%**

4 동일 보험회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19.4.18일 이전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사고 당사자**의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

✓ 이에 따라,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 가능

*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는 약 5.6만건('17년)에 이르나 분쟁조정이 불가

** 사고 당사자가 동일 보험회사 민원 사례

> ➢ **가해자, 피해자** 모두 **같은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쌍방과실**로 **안내**하여 손해보험협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받음

❑ (개선방안) **'19.4.18일부터 분쟁심의위원회**가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 **심의의견 제공***

* '19.4.17.「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개정 완료

<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비교 >

사고 유형	현행	개선
가·피해자 **다른 보험회사** 가입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	○	○
가·피해자 **동일 보험회사** 가입 사고	X	○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X	○

참고 소비자 유의사항

① 과실비율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보험회사에 산정이유를 문의하세요.

❖ 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처리 시 적용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과 **사유**를 요청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궁금하다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동영상과 함께 게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또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http://accident.knia.or.kr)

-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 등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다음 등에서 "파인"(http://fine.fss.or.kr) 검색 → 파인 홈페이지에서 '보험 다모아' 선택 →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선택

❖ 또한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앱 **개편**으로, 기존 앱은 삭제하고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피해운전자의 사고 회피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경우 민사상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금 산정 시 이를 **참작**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의 **사고 회피가능성,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④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절차 또는 과실비율 상담전화를 이용하세요.

❖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호사로 구성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된 보험회사에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조정을 요청

❖ 과실비율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상담전화***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02-3702-8500)로 전화 후 ④번 상담원 연결

☞ 본 자료 출처 : http://www.fss.or.kr

5. KEB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

- 금융기관과 전문후견인을 통한 피해자 재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KEB 하나은행은 "친모 살인사건"의 생존피해자를 위하여 사단법인 온율(법무법인 율촌 산하 공익사단법인)과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친모 살인사건"은 지난해 10 월 조현병 환자인 가해자가 모친을 살해한 뒤 범죄신고를 하는 여동생 또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생존피해자 역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지적장애를 가진 생존피해자가 지급받은 구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면서 구조금이 온전하게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보호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 KEB 하나은행은 범죄피해자의 재산보호를 돕기 위하여 검찰, 공익사단법인간 긴밀한 협력으로 금융권 최초로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앞으로 KEB 하나은행은 신탁된 구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매달 피해자의 생활비를 지급하게 된다. 사단법인 온율은 후견기간 중 피해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목돈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구조금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구조금의 사용내역과 향후 지출 계획은 검찰에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후견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 검찰에 의한 관리·감독이 지속된다.

KEB 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신탁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 설계 기능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재산보호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금융’ 실천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신탁과의 콜라보를 통한 금융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EB 하나은행은 ‘성년후견 지원신탁’을 통해 신탁 상품의 이용 편의성과 금융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받아 지난해 금융소비자연맹으로부터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 품질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KEB 하나 Living Trust 센터’는 고령화 대비한 상속설계 상품뿐만 아니라 치매환자, 미성년자,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 KEB하나은행, 외국인 근로자 손님 편의를 위해 호남지역에 일요 영업점 개점

KEB 하나은행은 지난 5 월 12 일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손님의 금융편의 확대를 위해 호남지역에 시중은행 최초로 광주광역시 광산지점에 일요 영업점을 개점했다고 13 일 밝혔다.

KEB 하나은행은 평일 은행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손님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일요 영업점을 운영 중이다.

이번 광산지점이 추가되어 평일과 일요일 모두 문을 여는『일요 영업점』16 개, 일요일에만 문을 여는『일요 송금센터』3 개 등 시중은행 최다인 총 19 개의 일요 영업점을 운영하게 됐다.

이번 광산지점의 일요 영업 개시로 그 동안 원거리의 일요 영업점을 방문하여 큰 불편을 겪었던 호남지역 외국인 손님들은 외화송금, 환전은 물론 일반 은행업무까지 대폭 확대된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광산지점의 일요 영업 시간은 오전 10 시부터 16 시까지이며, 설날 및 추석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무이다.

광산지점은 2 층을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간의 친목도모 및 각종 교육, 행사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해 영업시간 중 상시 개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KEB 하나은행은 외국인 손님들과의 보다 원활하고 정확한 소통을 위해 태국, 스리랑카, 네팔, 베트남 등 10 개국 출신 외국인들을 채용하여 최고의 금융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ATM 기에서는 17 개, 스마트폰 뱅킹에서는 13 개 해당국가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